

경북도, 지방 소멸 막는다... 5년간 300개 어촌에 3조 투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9개지구 선정 의료·복지·문화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대상지에 자문·컨설팅 지원

경상북도는 지난 1월 19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유형1 1지구, 유형2 4지구, 유형3 4지구 총 9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예산 등 총 9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에서 나아가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

조원을 투자한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매년 60개소씩 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시작해 지난 달 15일 예비계획 제출까지 도와 시군의 철저한 공모 준비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유형1 1지구를 포함 최종 9지구가 선정됐다.

특히, 도내 어항이 전국에서 5.7%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에도 올해 총 65지구 선정에 300억원 규모의 유형1 1지구를 포함한 14%인 9지구

가 선정돼 사업지구 및 사업비규모 면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뤄냈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유형1 1지구는 영덕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4지구는 포항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외 1개소, 경주 「전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울진 「골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4지구는 포항 「조사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외 1개소, 경주 「하서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울진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이다.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포항 4지구 300억원, 경주 2지구 150억원, 영덕 1지구 300억원, 울진 사업비 150억

원이다. 또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하고자 올해 추경예산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 용역자문비 1억원을 신청·반영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추진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어항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연안 5개 시군 24개소 2178억원을 투자해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 신청

경남 진주시는 27일부터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특히 달라지는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차보전율을 0.5%P 상향 지원하고 기존 제조업에만 제한됐던 용자대상업체를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까지 확대했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업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을 1회에 한해 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2023년 상반기 자금규모는 500억원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울주군, 안정적 영농정착 돕는다

울산시 울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정책 용자 지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과 기존 농촌에 거주했던 재촌비농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귀농인의 경우,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이면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영농 관련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천시는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84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용자사업 신청접수

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장기·저리로 용자금을 지원하는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용자사업'의 신청을 2월 3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농업발전기금 용자사업을 통해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화 및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영암(전남)=김용화 기자 jiacocom@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순항'

동천 뱃길 운행 등 마무리

2023정원박람회 개막 70여 일을 앞두고 순천시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4월부터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단순히 감상하는 정원을 넘어 일상을 어떻게 바꿔내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내고자 한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현재 80% 공정률로,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며 2월까지 모든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중 화훼연출과 식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천 뱃길 운행을 위한 준설 작업은 마무리 됐으며 박람회장과 연결하는 수문도 새로 정비했다.

'애기 궁뎅이'로 불리는 두 봉우리 사이 붉게 지는 노을을 감상하며 저절

/순천(전남)=양수영 기자

경북교육청, 학생 위기대응능력 강화

안전교육 용품 구입지 30억 지원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생활형 안전사고와 각종 재난 및 위험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안전교육 용품 구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모든 학교가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험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에 따라 1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2023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이는 불의의 사고 시 대처 능력 함양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을 포함한 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급 학교는 연간 51차시 이상의 7대 영역 안전교육인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지난해 안전한 등하굣길 캠페인하고 있는 임종식 교육감 모습.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비 교육에 필요한 학생 안전 교육용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해 피부로 느끼는 체험형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지원을 통해 체험형 안전교육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순천 그린웨이 도시숲

도시숲 조성 377억 투입

전남도 사업비 '전국 1위'

도시열섬 등 기후위기 대응 조성방법 등 교육 이달 추진

전남도가 올해 주민 생활권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시열섬·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 숲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9% 낮추고 1ha의 숲은 경유차 27대가 연간

내뿜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 조성 대상 지역은 '여수 국가·울촌산단 4.5ha', '순천 해룡산단 등 2.9ha', '광양 중마지구 등 7ha', '구례 양정축산단지 1ha', '보성 조성농공단지 0.1ha',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0.2ha', '해남 구성지구 2ha', '무안 남악철도 등 4ha' 등이다.

전남도는 수종 선택과 식재 방법 등에 전문가 자문을 얻는 등 사업을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월 말에는 산림청에 의뢰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대상지 선정 심사 절차와 조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가족형 축제 '안동 암산얼음축제' 개막

안동시, 각종 체험프로그램 마련

경북 대표 가족형 겨울놀이 축제인 '2023 암산얼음축제'가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안동시 남후면 암산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안겨줄 이번 안동암산얼음축제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로 관광객들을 찾아가다.

얼음썰매, 빙어낚시, 민속놀이, 놀

이지구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겨울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얼음 조각과 얼음빙벽 등 포토존, 아이스 컬링 및 썰매타기 대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도 축제기간 내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1월 28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남후면 전통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2023년 발전하는 안동의 희망 메시지를 선포하는 퍼포먼스와 다양한 캐릭터로 꾸민 '놀이단 寒(한) 식구'의 공연 등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